

생산 차질 불가피... '5조 매출' 목표 먹구름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일평균 3만3000개 생산 2공장 7만㎡ 소실 추산 설비 복구 최소 수개월

지난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향후 제품 생산과 매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1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불이 난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공장은 국내 2위 업체인 금호타이어가 국내에서 가동 중인 광주·곡성·평택공장 중 가장 이른 1974년에 세워졌다.

이 공장은 금호타이어가 국내에서 1년

에 생산할 수 있는 총 2730만개의 타이어 중 약 58%인 16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현재 하루 평균 생산량은 3만3000개다.

광주공장은 서쪽 공장(2공장)과 남쪽 공장(1공장) 등 2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서쪽 공장 전체 면적 14만㎡ 중 7만㎡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사고 직후 광주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 화재 진화율이 90%를 넘어 국가소방 후 제품 생산과 매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불이 꺼진 뒤에도 화재로 소실된 설비를 복구하는 데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금호타이어의 완성차 타이어 공급 등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완성차 5사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의 올해 2분기 이후 실적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2023년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이후 수익성 중심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하며 성장 폭을 키워 왔다. 지난해에는 매출 455381억원에 영업이익 5906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썼다. 올해 1분기에도 1조2062억원의 매출과 1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올해 사상 최고인 5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금호타이어는 곡성·평택공장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등 신속한 수습을 통해 실적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화재가 진압되면 피해 규모와 다른 공장에서의 생산분 이전 등 추후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기아·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차질 없어

복수업체서 납품·재고 확보 장기화면 완성차 공급 타격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광주 지역 완성차 공장의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장 재가동이 늦어질 경우 연쇄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에 따르면 기아 오렌트 광주공장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외에도 한국·넥센타이어 등 복수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고 일부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당장 자동차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CONOMY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광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내일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 안내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10시 청사 제3강의실에서 지역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순회 교육 프로그램 일환이며 지역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목표다.

중차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법령 취지나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실무 대응의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산업의 특성과 재해취약업종을 반영해 이윤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안전문화 확산, 사고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등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상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 정책과제 16건을 발굴, 이를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중차별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산재예방 예산의 대폭 확충, 기업 규모에 따른 의무 차등화, 처벌 수준 개선, 중대재해예방법으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기획조사본부 (062-350-5863)로 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진어는 최근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인 '패밀리 데이(Family Day)'를 개최했다.

진어,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 데이'

기내방송·소방훈련 체험...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진어(www.jinair.com)가 최근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인 '패밀리 데이(Family Day)'를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진어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실제 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한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됐고, 가족 간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됐다.

서울 강서구 진어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70여 명이 참석한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인기 기내식 만들기, 승무원 유니폼 착용 및 기내 방송, 실제 상황

을 가정한 소방 안전 훈련, '바다우리' 등을 활용한 임시이클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캐리커처, 퀴즈 대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운영됐다.

자유한 진어에 운송지원그룹 차장의 자녀 차이인·다인 어린이는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처음 와봤는데 참 신기했고 집에서 보면 아빠의 모습과 다르게 든든하고 멋있었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진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회사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서로에 대한 끈끈함이 더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일본서 '청정 전남' 관광 매력 알렸다

전남도·관광재단, '오사카 엑스포' 참가·해외시장 공략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세계 3대 국제 행사 중 하나인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안에서 진행되는 'K-관광 파스타'에 참가해 전남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브랜드 인지도를 일본 현지에 알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파스타는 한국 정부가 주관한 '한국의 날'과 '한국 주간'을 연계해 일본 오사카 엑스포 안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으며, 한류와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 현지에서 전남도를 집중 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남도는 K-미식 이벤트에 참가해

완도 김을 활용한 김밥 만들기 체험 등 현장 참여형 콘텐츠를 무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밥 만들기 체험은 전남의 청정 식재료와 식문화를 일본 관람객들이 직접 만들어 맛볼 수 있도록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남 고유의 관광 매력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전남도 명예 홍보대사인 신카이 미야코는 무대 발표를 통해 전남의 대미시 관광을 소개했다. 목표의 9미, 여수의 하모(갯쟁이), 장흥의 삼합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과 함께 주요 관

광 코스를 일본어로 생생하게 전달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남도 홍보 부스에서는 전남도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 하면 전남의 매력을 담은 손수건, 공기놀이, 김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했다.

또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협력해 운영된 전통놀이 체험 이벤트도 큰 인기를 끌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공기놀이'와 '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일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호남대, '농활' 업무협약

농협 광주본부와 호남대학교는 최근 호남대에서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지역소멸 위기 등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

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 박상철 총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농촌봉사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학점 및 봉사시간 인정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대학 발전기금 지원 등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노동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서포터즈 발대

지역 대학생 14명 위촉...온라인 콘텐츠 제작·홍보 활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고용센터에서 대학일자리센터와 함께 전국 최초 '국민내일배움카드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의 인지도 제고 및 청년들이 고용센터로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 내 대학생 14명이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됐다.

서포터즈단은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 캠퍼스 내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 사례와 혜택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제도 이해 교육, 콘텐츠 제작기법 강의, 고용센터 탐방 등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 호응을 얻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부산 '청년농부마켓' 직거래서

전남 농산물 1억9000만원 매출

전남도는 지역 청년농부들이 지난 7일까지 10일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청년농부마켓' 직거래장터를 운영, 부산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1억 9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행사 정례회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전남도가 청년농부의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전남의 우수 농특산물을 부산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직거래장터에는 총 23개 청년농부가 참여해 25개 매대를 운영했다. 고구마, 토마토, 파프리카, 유자콤부차 등 전남 각 지역의 대표 품목이 큰 호응을 얻으며 조기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롯데백화점 측은 이번 행사의 소비자 반응과 청년농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정례적인 행사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강현구 지오쿠(전남청년농부협동조합) 대표는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우리 농산물을 부산시민에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남도는 매년 약 20회 대도시지역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부와 중소농의 유통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500여 농가(업체)가 참여해 18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청년농부들이 주도적으로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거래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계적 판촉 행사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로또 1등 13명... 당첨금 각 22억원

제117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24, 40, 4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2억30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98명으로 각 487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59명으로 1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8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9만472명이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중국진출 전략' 금요포럼

조평규 박사 초청...원남기업연합회와 협약도

광주경총은 광주광역시에서 중국 전문가 조평규 박사를 초청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1685회 금요초점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평규 박사는 한중기업연합회 상임대표로 중국 연달그룹 특별고문, 장보고글로벌재단 부이사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와 중국엔다그룹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중국을 알지 못하면 중국을 넘을 수 없다' 등 저서를 발간했고 KBS 글로벌 성공시대와 아리랑TV 등 다수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특강을 통해 올해 중국 경제 방향과 미·중 관계 전망, 중국 자본시장 전망, 중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중국 대도시 진출 전략 및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등을 안내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거듭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